

2020 함께가자 이 길을 감리회청년주일 안내서



기독교대한감리회
교 육 국

기독교대한감리회
청년회전국연합회

#목차

- * **환영의 말**
- * **청년주일을 소개합니다!**
- * **청년주일! 이렇게 지켜주세요**
- * **연합회 조직! 이렇게 해주세요!**
- * **청년주일 예배문**
- * **청년주일 표준설교문1**
- * **청년주일 표준설교문2**
- * **청년주일 말씀묵상**
- * **감리교청년회를 소개합니다!**

2020 감리회청년주일 목회서신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육국 총무 김영범 목사



5월 17일은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정한 제21차 청년주일입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선교 초기부터 엡윗청년회를 조직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해 뜨겁게 활동해 왔습니다. 그런 조직과 활동으로 인하여 감리교회는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았습니다.

청년이 살아 있어야 감리교회도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청년이 없으면 교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래서 청년주일을 지키는 일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현재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문화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한국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가 위기라고 말하지만 결코 위기가 아니며 오히려 기회로 작용하는 교회 리쇼어링(Reshore)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때에 청년들의 건강한 신앙과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다가올 다음세대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새로워질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 출발점이 되는 청년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청년에 활동을 시작하였듯이 교회는 청년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의 모든 세대를 품을 수 있으며, 전통과 비전이 공존하며 서로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선 청년들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감리교회 청년들이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이요 내일의 주역인 청년들이 푸른 신앙과 사랑으로 청년 주일을 지켜서 새로운 부르심과 열정을 다시 회복하는 특별한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특별한 역사 의식으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모든 교회가 제21차 청년주일과 함께 하셔서 감리교회 청년들이 크게 부흥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육국 총무 김두범 목사

2020 청년주일을 소개합니다!

1987년 엠틀청년회에서 시작된 감리교청년선교는 한국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해 왔던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감리교청년들은 조국의 독립과 민중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함께 해 왔습니다. 한국교회는 선교 초기에 감리교청년들의 헌신과 열정적인 신앙을 통해 부흥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청년주일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감리교청년들이 하나님의 정의, 평화, 창조질서가 보존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거듭나고, 감리교신앙의 정체성을 재확립하며, 청년선교의 비전을 마음에 깊숙이 새기는 주일입니다. 또한 감리교청년을 향한 교회의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청년들의 지위 향상과 청년선교 활성화를 위해서 기독교대한감리회에서는 1999년 12월 13일 감리교청년주일을 제정하였고, 매년 5월 3번째 주일을 청년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바라는 청년주일을 통해 모든 감리교회가 각박한 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기를 소망합니다.

1. **일시** : 2020년 5월 17일(주일)
2. **주제** : ‘함께가자, 이 길을’
3. **주제말씀** :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귀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요한1서 1장 1~7절)

청년주일, 이렇게 지켜주세요!

1. 2020년 5월 17일(주일) **낮 예배를 청년주일로** 지켜주세요.
 - *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청년선교의 중요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 청년주일 예배문과 기도문을 사용해주세요.
 - * 청년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져주세요.
 - * 청년주일 목상을 진행해 주세요.
2. 청년주일 **포스터**를 부착해주시고 5월 세번째 주일이 청년주일임을 알려주세요
3. 청년주일 지침서, 포스터, 영상 등 각종 자료를 이용해주세요. 각종 자료들은 www.facebook.com/youthsunday94/ 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4. 청년들의 생활과 신앙의 고민을 풀어갈 수 있는 **대화의 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주세요.
5. **청년주일 헌금**은 교회 청년들을 위해 사용해주시고, 일부는 청년회전국연합회에 보내주세요. 전국연합회로 보내주신 청년선교헌금은 청년지도력육성, 감리교청년 국제지도력 육성에 쓰여집니다.

* 보내실 곳 : 우리은행 132-422823-13-001 (기독교대한감리회 청년회전국연합회)

연합회 조직! 이렇게 해주세요

지난 몇 년간 ‘청년이 교회를 떠난다’, ‘청년선교의 위기’라는 말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위기를 정직하게 받아 드린다는 전제 아래 가능한 것 입니다. 감리회의 미래라고 하는 청년들은 교회와 교단에 실망해 떠나고 있습니다. 감리회청년회는 이 위기의 출구를 ‘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연합’의 가치를 다시 세움으로 청년이 교회에 돌아오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이 연합운동이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십시오.

#청년연합회 조직하기

Step 1 지방 청년들끼리 만나게 해주세요.

지방 청년들이 스스로 연합모임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 크고 작은 자리를 마련하여 청년들이 만나 서로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류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이를 위해 각 교회 목회자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지방 청년들 간의 만남과 교제의 자리를 만들어주시고 청년들로 하여금 연합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세요.

Step 2 비전을 심어주세요.

지방청년들이 청년연합회를 통해 어떤 꿈을 꿀 수 있는지 조언해주세요. 구체적으로 청년들이 연합모임을 논의하고 서로의 비전들을 연합회에서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지를 고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함께 연합의 꿈을 그려낼 수 있는 사람들을 엮어내어 구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세요.

Step 3 모임을 공식화해주세요.

연합회 구성에 대한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면, 이제 모임을 공식화해주세요. 지방에 소속된 각 교회의 청년임원들을 소집해주시고 총회를 열어주세요. 임원을 선출하고 필요한 회칙을 만들거나, 수정하여 제정한 뒤, 비전을 가진 청년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직분을 주세요. 새로 된 임원들이 처음 시작할 경우는 감리교의 구조나 역사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신 임원들이 열정을 다해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가 필요합니다.

Step 4 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지원해주세요

처음 연합회 활동을 하게 되므로 연합회의 사업기획이나 진행, 예산 결정, 후원금 받기, 청년들 모아내기 등의 일들이 자연스럽게 진행되지 못합니다. 지방에서 청년들의 연합활동을 위한 예산을 책정해 주시고, 활동에 필요한 조언을 아낌없이 해주세요.

Step 5 다른 청년연합회와 연결해주세요

연합회가 어느 정도 자리 잡히면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는 연합회의 활동을 직접 보고 도전을 받아 자체적인 사업을 창조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전국에 조직되어 있는 연합회의 모임인 청년회 전국연합회의 모임을 통해 회의, 사업진행에 대한 다양한 사례들을 얻게 해주고, 청년 정책에 필요한 자료들을 얻도록 연결해 줍니다.

청년들의 연합모임이 활성화되어 감리교회의 건강한 토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청년들은 감리교회의 미래이면서 동시에 현재입니다. 연합의 가치와 연대의 가치가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그 가치를 붙들고 모이기에 힘쓰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자 노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기도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주일 표준예배문

본 예배 안은 2020 청년주일 모범 예배안입니다. 모범 예배안을 참고하시
되 개교회의 상황과 재량에 맞게 청년주일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 타종과 함께 조용한 기도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조용한 기도 다 함 께

예배로의 초대 사 회 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함이어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찬 송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송가 50장) 다 함 께

대 표 기 도 청년회 임원 중

주 기 도 문 다 함 께

성 경 봉 독 청년회 임원 중

(* 2020 청년주일설교 예문을 참고하여, 청년을 위한 설교를 전합니다)

말 씬 담 임 목 사

(* 2020 청년주일설교 예문을 참고하여, 청년을 위한 설교를 전합니다)

결 단 의 기 도 다 함 께

특 송 / 헌 금 청년회 일동

(* 봉헌된 헌금은 교회 청년회를 위하여 사용해주시고, 헌금의 일부를 감리교청년회 전국연합회에 보내주세요. 감리교청년들을 위한 지도력 향상과 선교 사업에 쓰입니다.)

헌 금 기 도 청년회 임원 중

광 고 사 회 자

축 복 의 찬 양 다 함 께

파 송 다 함 께

- 집례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 회 중: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작은 예수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축 도 담 임 목 사

청년주일 표준설교문 1

우물을 파는 심정 창세기 26장 21~25절, 요한1서 1장 7절(새번역)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그랄의 블레셋왕 아비멜렉과의 악연을 이어갑니다. 평행이론이라고 해도 무방한, 자신의 아내에 대한 그의 거짓말이 아비멜렉과의 갈등으로 다시금 이어집니다. 창세기 26장에 등장한 이삭은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고, 흉년의 혹독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대로 그랄에 머무르게 됩니다. 아비멜렉과 엮이지 말라는 그 경고를 듣지 않고 똑같은 갈등에 휩싸입니다. 처음에는 그 경고를 비웃듯 이삭은 그곳에 누구보다 번성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타지인 혹은 외부인 심지어 이방인이 번성하게 되면 주위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 공동체에서 관리하는 우물을 모조리 훔으로 메워버립니다.

한 곳에 정착하게 되면, 무엇보다 ‘물’이 귀중합니다. 물의 쓰임은 실생활과 반드시 연결됩니다. 사막지형과 건조한 날씨를 미루어 봤을 때, 중근동지방에서의 물이 귀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식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공동체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물’의 중요성은 더 커집니다. 그러나 이삭공동체는 더이상 이 물을 쓸 수 없게 됩니다.

이삭은 장소를 옮겨 우물을 팝니다. 이 우물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다시 새로운 우물을 두고 토착민들이 시비를 걸었기 때문입니다. 장소를 이동해 우물을 팝니다. 다시 발견하고 판 우물을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르호봇’은 ‘라히브’에서 파생되어 ‘레호브’와 합친 단어인데, ‘광장’, ‘넓은 마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이나 유럽도시의 중심인 광장을 생각하면 안됩니다. 광장은 궁터입니다. 즉 이삭은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는 다짐은 마음으로 우물을 파고, 힘겹게 재정착합니다.

그리고 브엘세바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토착민들은 누구도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작하는 것, 그 자체가 그들의 방해 공작이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착잡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든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납니다. 24절과 같이 약속합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피 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을 보아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의 수를 불어나하겠다.

꿈의 긍정적인 신호에 비해 현실로 돌아왔을 때, 아무것도 남은 게 없습니다. 우물을 더 확보해야 함은 물론, 할 일이 산더미입니다. ‘우물’은 히브리어로 ‘베에르’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땅이나 바위 속에서 솟아나는 물과는 성격이 다른, 사람이 몸소 땅을 파서 구덩이에서 나오는 물을 뜻합니다. 직접, 몸소 무언가를 만들어야 합니다. 히브리어 ‘베에르’는 동사 ‘바아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파다, 새기다, 뜻을 파악하다”라는 뜻으로, 이삭의 재정착은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는데 고되고 고된 과정인 셈입니다. 넓은 대지에서 한 부분만 판다고 바로 물을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실패 속에 성공할 수도 있고, 다음을 기약하고 또 실패를 받아드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2020년을 살아가는 청년들의 삶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날의 청년들을 평가하는 잣대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노력’입니다. 단군 이래 최대-스펙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은 ‘노오오력’으로 자신들만의 우물을 파기 위해 기를 씁니다. 그야말로 우물은 귀합니다. 귀하디 귀한 희망이기도 하고, 값진 꿈입니다. 이 우물을 파는 행위는 희망을 발견하려는 노력이고, 꿈을 이루려는 노력입니다. 모두가 그럴싸한 우물을 파낼 수 없습니다. 사회라는 광야에서 그럴싸한 우물을 발견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이지요. 그런 우물은 이미 누군가가 차지했거나, 이 하나를 차지하기 위해서 극심한 경쟁에 휩싸입니다. 오늘 본문 이삭이 겪었던 것처럼 그런 우물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아이러니는 그럼에도 자신만의 우물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물이 없다면, 인생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의미가 없습니다. 우물은 자존감인 동시에 우리네 삶의 이어주는 삶의 원동력입니다. 각자의 우물을 파기 위한 ‘노력’에 우리 사회나 공동체에서 박수를 보내야 합니다. ‘과정’마저도 비난을 받는 사회, 공동체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이삭도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똑같은 실수를 겪습니다. 실수를 겪고 그 실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숨소리와 목소리를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보다 더 혹독하게 정착할 곳을 찾게 되고, 마침내 재정착하게 됩니다. 르호봇은 이삭의 아들 야곱이 다시금 우물을 발견하고 정착할 수 있게 합니다. 이삭의 우물을 발견하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가 희망을 가슴에 품고, 좌절하지 않고, 우물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물을 찾는 이에게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물을 발견하고 그 구덩이를 파내는 것,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뜻을 묻고, 그 뜻을 찾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이삭이 그 곳에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였다.

25절은 신앙에서도 이삭의 적극적인 모습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합니다. NIV에서는 이를 ‘Call’로 해석합니다. 영어 ‘Call’은 단순히 ‘부르다’는 것보다 직접적으로, 이름을 부르며 ‘호명’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행위입니다. 이삭은 어렵고 또한 난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이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Call’은 ‘요구하다’라는 뜻도 지닙니다. 즉 이삭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에게 요구합니다. 이에 하나님의 반응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Calling’을 주십니다. 바로 ‘소명’인데, 이 소명은 이삭이 하나님에게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요구했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사명’입니다. 이에 우리도 응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물을 찾는 것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소통인 셈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은 무엇이고, 그 사명은 무엇일까요? 요한 1서 1장 7절에서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주신 빛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고 서로 만나들이, 사귀 수 있다는 빛을 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의 피로서 구원받았기 때문이고, 그 가능성 안에서 온전히 그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신앙인이기에 그렇습니다. ‘사귀’는 ‘코이노니아’로, 진정한 교제, 친교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됨입니다. 이는 발견한 우물을 혼자만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이를 가지고 교제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간곡한 당부입니다. 우물은 같이 파면 기쁨이 두 배가 되고, 나누면 네 배가 되고,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나그네에게까지 베풀면 하나님까지도 찾으시는 우물이 됩니다. 그곳에 ‘Calling’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빌립보서 2장 1-2절>

청년주일 표준설교문 2

재난을 대비하는 방법 : 공감과 연대 레위기 20장 33절~34절

매년 돌아오는 ‘봄’은 교회력을 따라 사순절을 지나 부활절기로 이어집니다. 고난의 행보를 거쳐 죽음에 이른 뒤 새생명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의 공생애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시기입니다. 한국사회는 이 계절에 특별한 아픔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과 청년들이 정부의 독재에 항거하며 싸우다 무력에 의해 죽어간 4.19혁명과, 민주시위에 참여한 양민들을 무력진압으로 학살한 제주의 4.3항쟁, 5.18민주화운동입니다. 국가폭력에 의해 죽어간 이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봄은 그 희생 위에 세워진 민주주의의 의미를 되새기며 눈물을 흘렸고, 꽃이 피는 자리마다 자유를 향한 열망을 피웠습니다. 독재를 넘어서 민주주의의 큰 성장을 이룬 우리 사회가 오늘날 누리는 자유와 평등의 가치는 잔인한 폭력의 역사를 알고 이해하며 공감할 때 되살아납니다. 허망하게 가족을 잃은 이들이 여전히 상실의 봄을 살아내고 있고, 많은 이들이 그 이유와 진실을 밝히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 또한 십자가의 의미를 묻고 진리를 찾는 종교입니다. 예수의 죽음을 기억하는 기독교의 상징이자 거룩한 이미지의 십자가는 권력자들이 사용하는 잔인한 형벌의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지독히 폭력적인 이 사건은 기독교인들에게 매년 봄마다 읽혀지고 찬양되고 신앙으로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피에르 아벨라르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은 동정심과 공감으로 가득 차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자비와 본능적 공감의 내면적 움직임이 된다고 말합니다. 자신 뿐 아니라 다른 이의 고통에 공감한다는 것은 종교의 중요한 역할이자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지 못하고, 예수의 고통을 자기화하지 못한다면 기독교인은 형식만 있고 내용은 없는 껍데기 신앙인일 뿐입니다. 때문에 타인의 자리에 서보는 것, 다른 사람과 같은 입장이 되어보기 위해 스스로를 타자화해 보는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훈련이 됩니다. 우리시대에 타인의 고통에 공감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모습으로 가능하게 될까요.

금년 봄은 코로나19로 인한 생활문화와 사회의 변화들로 기억될 것입니다. 마스크를 사기 위해 약국 앞에 긴 줄을 서는 모습이 낯설었던 시기를 지나 한창 졸업식과 입학식으로 떠들썩할 새로운 만남과 시작은 차단된 채, 학생들은 집에서 온라인수업을 듣고 시민사회단체들의 공적 모임들이 온라인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아이들과 부모들은 달라진 일상에 적응하면서도 큰 불편을 참아내느라 힘들어하고, 매일 쏟아지는 코로나19소식에 우울감을 토로하는 코로나 블루(corona blue)라는 신조어도 생겨났습니다. 질병 관련 과잉 정보로 인한 정신적·심리적 대재앙을 내포한 ‘인포데믹’(infodemic)이라는 말도 우리사회에 적용되고 있지요. 우리 사회를 흔들며 퍼진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만이 아니라 사람들 간의 공포심과 경계심이라는 정서적 불안입니다. 그것은 바이러스의 음성·양성 결과를 떠나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야말로 더 큰 재앙인 듯 보입니다.

모두가 함께 감내하고 있는 코로나19 정세 속에서도 여전히 더욱 취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3월에만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180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니, ‘코로나 공황’에 직접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된 노동자들의 고통은 추측이 안될 정도입니다. 사진작가 정기훈은 ‘이중고’를 겪는 이들을 향한 시선을 전합니다. “바이러스는 지위고하 따위 처지를 가리지 않아 공평했다. 견뎌 낼 방편이 없는 사람들이 다만 길에 나와 그 사정을 알리느라 가쁜 숨을 뱉곤 했다. 위기는 누구나의 일이었지만, 벼랑 가까운 곳 내몰린 사람들 긴 줄엔 순서가 있기 마련이다. 신종의 바이러스는 기어코 우리 사회 구석구석 기저질한 깊어 취약한 곳을 들춰낸다. 마스크 필터 너머로 숨쉬기가 쉽지 않다. 밥벌이 걱정에 숨이 턱 막혀 온다. 이중고다.” 고용불안과 실직이 만연해진 이 사회에서 견뎌 낼 방편이 없는 사람들에게 어떤 대책을 마련해줄 수 있을까요. 해고와 실업의 공포는 우리가 공감할 수밖에 없는, 또한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기층민들의 건강권을 이야기하는 조한진희 작가는 우리가 ‘약자들이 죄송한 사회’를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방송매체 나온 코로나19 확진자들은 “죄송합니다”라며 사과를 했습니다. 병에 걸린 것도 고통스러운데, 이 사회는 전염병에 고통당하는 이들이 죄책감이나 자책감에 시달리게 만들 뿐 아니라 개인정보를 공개해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픈 이들과 가난한 이들을 자기경영과 관리의 실패자로 만들면서 세상에 민폐가 된, 존재가 죄송해지는 신자유주의 사회의 속성입니다. 그는 그 좌절감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질병의 개인화’를 비판하면서 가난할수록 질병에 더 많이 걸리는 이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 나가고 아픈 몸과 질병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말합니다. 감염자들이 정작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의 차별과 낙인이라고 합니다. 그는 생물학적 바이러스 방역만으로는 일상의 안전을 지킬 수 없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픈 게 죄송하지 않은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질병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집단적인 혐오와 분리, 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미국의 작가이자 평론가인 수전 손택은 질병에는 ‘질병 그 자체’의 의미 외에 다른 은유적 의미가 존재하며, 이러한 은유적 의미에 저항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의미들이 환자에게도, 사회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령 나치는 여러 피가 섞인 ‘인종적’ 혈통을 지닌 사람은 매독 환자 같은 사람이라고 단언하면서 유럽의 유대인들을 제거되어야만 할 매독이나 암에 끊임없이 비유했습니다. 또한 전염병 창궐이 외국인 혐오로 이어져 외국인들과 이민자들의 출입을 모두 금지시켜야 한다는 요구를 불러왔던 사례들을 설명하며, 질병에 대한 오해와 극단적 태도들이 얼마나 사회를 위협하게 몰아가는지 주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에서 한국인을 비롯한 아시아 여성들을 향한 폭력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인을 아시아인들에게 두고, 그 중 약자인 여성들에게 보복하려 한 것입니다. 결국 바이러스를 막는 것만 큼이나 우리가 주의하며 저항해야 하는 것은 불안과 위기의 원인을 타인에게 두는 배타적인 마음입니다. 또한 취약한 이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버려두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오늘날의 사회는 너무도 촘촘히 연결돼 있을 뿐 아니라 서로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을 해치거나 그들의 이익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결국 자신의 고통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타인에 대한 환대는 성서가 지키고자 했던 중요한 법령이자 신조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큰 위기는 바벨론 유수였을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되었고, 성전이 파괴되었으며, 다수의 유대인 엘리트 계층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국가 멸망의 시기에 포로로 잡혀와 유배된 이들은 성전이 무너지고 예배를 드릴 수 없음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유배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 전례와 정결 의식, 음식 규례를 지킴으로써 그들 가운데 신이 현존하듯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촉구합니다. 유배의 고통은 유배당한 자들에게 타자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 고통 속에서 신을 발견하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자긍심이었던 민족적 경계를 넘어서 이방인을 멸시하지 말라는 성서의 황금률이 유랑의 경험 속에서 더욱 확고히 자리 잡았습니다. 레위기의 저자였던 제사장들은 초기의 법령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땅에 이방인이 너희와 함께 살 때에, 너희는 그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와 함께 사는 그 이방인을 너희와 같이 여기고, 그를 너희의 몸과 같이 사랑해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 살 때에는, 이방인 신세였다.” 누구든 낯선 곳에서는 이방인이 된다는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전수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자신들만의 집단에만 한정할 수 없으며, 어떤 방식으로든 낯선 사람과 이방인, 심지어는 적에게까지도 자비를 펼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뿐 아니라 모든 종교가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묵자는 인류의 안녕을 바라는 것은 인간의

절대 평등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관심’인 겸애(兼愛)에 의해 좌우된다고 설파합니다. 이는 보다 실리적인 지점에서 적용이 됩니다. 국외로의 출입이 자유로워진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는 자국의 방역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가난한 나라 쿠바에서 이탈리아에 의료진을 파견한 사실은 ‘나 하나만’, 또는 ‘우리만; 내 나라만’이라는 이기주의를 넘어서는 인류애와 자비의 실천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다른 지역의 확진자들에게 병상을 내어주고 격리자들에게 자발적 헌신과 봉사를 해낸 의료진들과 봉사자들에 대해 세계가 감동하며 칭찬했습니다. 오히려 자국민 보호를 위한 수출입 봉쇄정책이나 이민자 추방 등과 같은 조치는 세계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가장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 어쩌면 확진자로 격리된 이가 나일 수도, 혹은 내 가족일 수도 있다는 상상만으로도 우리는 이기적인 생각이나 손가락질을 멈출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이미 식민지 시절과 전쟁을 겪었습니다. 독재와 학살을 경험했습니다. 더 이상 그러한 상황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인종, 젠더, 언어, 문화, 빈부, 계층, 민족 등의 차이를 넘어 다 함께 잘 살 자는 매커니즘의 변화를 통해 가능합니다.

“과연 나만 잘 살면 행복한 것일까?”

세계적인 종교학자인 카렌 암스트롱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12단계 실천 프로젝트를 제안하며 하는 질문입니다. 지속적인 이타주의를 실천하고, 나와 다른 세상에 살아가는 이들을 알기 위해 배우고, 다가가고, 기도하며, 자비를 실천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세상이 변하기를 원한다면, 스스로 그 변화가 되어야 한다고. 그 변화는 자신이, 누구라도 이방인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타자의 고통에 공감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를 이겨내기 위해 연대하는 것을 통해 가능해 집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전염병과 그 위기를 맞아 개인과 사회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동력을 멈추면, 전원을 끄면 모든 것이 사라져버릴 거라는 두려움은 우리를 쉬지 않고 달리게 했지만, 이제 그런 시스템은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바라보며 돕고자 할 때 길이 보인다는 것을 말입니다. 교회 또한 ‘우리 교회만’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공교회성을 회복하고 사회선교의 실천을 통해 공감과 연대를 이어가야 하겠습니다.

청년주일 말씀묵상

주제 : 함께가자, 이 길을

Step.1 마음 열기

- 1)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 봅시다. “나에게 하루가 선물로 주어진다면?”
- 2) 함께 모인 사람들과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Step.2 짐 내려놓기

* 준비물 : 큰 전지, 검은 펜, 크레파스, 사인펜 등

- 1) 큰 종이 위에 내가 언제 혼자인 것 같은 기분이 드는지 자유롭게 그려 봅시다.
- 2) 그리고 자신의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 3) 이제 그림을 고운 색으로 칠하고, 혼자인 것 같은 기분, 혹은 우울감,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적어봅시다.

Step.3 말씀 속으로

- 1) 다음의 말씀을 침묵하며 묵상합니다.

이사야 41장 1절~3절

- 1 주 여호와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여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
- 2 여호와와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자를 위로하되
- 3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재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2) 묵상한 것을 모인 사람들과 이야기합니다.

* 이야기 길잡이 : 이사야 61장 1~3절은 장차 도래할 메시아의 사역과 사명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메시아란 이 땅의 불의와 폭력을 끝내고, 정의를 바로세우며 구원을 도래시키는 존재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처럼 예수님은 병든자를 치유하시고, 억압 받는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시며, 불의가 가득한 이 땅에 정의를 세우셨습니다. 답답하고 우울한 우리의 시대,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는 분입니까? 함께 생각해봅시다.

Step. 4 희망 찾기

* 준비물 : A4용지, 검은 펜, 크레파스, 싸인펜 등

- 1) 각자 종이 위에 나의 모습을 그려봅시다.
- 2) 종이 위에 그려진 '나'를 위로해줄 말을 적어봅시다.
- 3) 다른 사람들의 그림에도 격려해 줄 위로의 말을 적어주세요.

Step. 5 새 삶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의 희망이시듯,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이 땅에 희망의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이 땅의 희망의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Step. 6 기도하기

* 돌아가면서 모두 한 마디씩 기도한 후 인도자가 마무리로 기도합니다.

감리교청년회 전국연합회를 소개합니다!

1. 감리회청년회 소개

기독교대한감리회 청년회전국연합회는 웨슬리 선생님의 신앙을 본받고 교회의 부흥과 민족과 이웃의 아픔에 동참하며 이를 극복함으로서 참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청년들이 모인 만남의 장입니다. 1897년 시작된 감리교청년 운동은 신앙운동에서 시작하여 민족의 독립과 민주화 운동을 넘어 생명 평화운동에 이르기 까지 시대적 요청과 부름에 충실하며 한편으론 교회의 양적, 질적 성장에 숨은 일꾼으로서 소명을 다해 왔습니다.

2. 감리회청년회의 목적

- 1) 그리스도 안세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따라 성결하고 고상한 생활을 함으로써 기독교적 인격을 계발하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계의 진정한 평화를 이루도록 우리가 속한 감리교회를 통하여 실천합니다.
- 2)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다스리는 그 나라에 이바지하기 위해 모든 인류에 봉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3) 각 청년연합회와 연결하여 개체교회 청년회 연합사업을 지도계획 실행합니다.
- 4) 세계 감리교 청년운동 및 교단 청년회 전국연합회와 연대하여 기독교청년운동과 교회 일치에 협력하며 세계 기독교 청년운동과 보조를 함께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3. 감리교청년회 63회기

- 1) 주제 : 함께가자, 이 길을
- 2) 주제성구 :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귀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요한1서 1장 7절)
- 3) 전국연합회 임원 :

회장	백승훈	위원장	이수현(성평등)
			옥승현(사회문화)
총무	백현빈		권주은(홍보통신)
			심승미(성서연구)

4) 감리교청년회 사업방향

1. 연합조직으로서 감리교청년회가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방연합회가 건강해야 합니다. 감리교청년회전국연합회는 무너진 지방연합회를 살리는 사업들을 고민하고 구체적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2. 날이 갈수록 기독교신앙을 가진 청년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감리교청년회 전국연합회는 우리시대 청년들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것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들, 교육 프로그램, 교육 자료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3. 시대적 요청과 마주하여 감리교청년으로서 정체성을 갖고 응답할 수 있는 건강한 청년을 길러내야 합니다. 감리교청년회는 사회적 현안들과 직접 마주하고, 그것에 응답해야하며 청년들로 하여금 관심을 불러 일으켜야 합니다.

5) 2020 감리교청년회 사업들

함께가자, 교회로

- 청년을 위한 예배문

교회력에는 많은 절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절기 예배들 가운데 청년을 위한 예배는 없습니다. 절기에 따른 청년 예배문을 만들어 배포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실질적으로 청년을 위한, 청년에 의한 예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청년체험수련회

도시교회 청년들과 시골교회 청년들의 접점을 만들고, 서로에 대한 공감을 위해 기획된 청년체험수련회가 올해로 15차를 맞습니다.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청년체험수련회가 되기 위해 확실히 개선하겠습니다.

- 지방회 조직

90년대 이후 감리교청년회의 전국조직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무너진 터 위에 새로운 싹이 돋아나듯, 63회기는 사라진 지방회를 재건하고 다시 살리는, 그래서 생동하는 청년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함께가자, 세상으로

- 다양한 사회참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감리교청년회는 그 다양성을 존중하며 그 안에서 고난받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함께 할 것 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혐오와 차별이 없는 평등한 세상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함께가자, 성서로

- 청년 묵상집

청년들을 위한 묵상집은 아직까지도 선택의 폭이 넓지 않습니다. 감리교청년회가 발간하는 청년 묵상집은 더욱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성서 해석을 통해 성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길을 청년들과 함께 고민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함께가자, 평등으로

- 교회 내 평등 가이드

교회 안은 그 어느 곳보다 평등해야하고 평화로워야 하는 공동체 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로인해 많은 청년들이 떠났고, 이제는 우리의 생존을 고민해야 하는 지경까지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각 교회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평등 가이드를 제작하고 배포하겠습니다.

함께가자 이 길을

기독교대한감리회
청년회전국연합회

기독교대한감리회
교 육 국

퍼낸 곳 기독교대한감리회 청년회전국연합회
연락 처 02)399-2170/2086

주 소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49 13층 청년회전국연합회 사무실

전자우편 myfk@hanmail.net

페이스북 facebook.com/youthsunday94